

# 3위 싸움·생존 전쟁... K리그1 최종전 '큰 판' 열린다

### 광주FC, 홈에서 포항과 대결...승리 땀 3위·아시아 챔스 티켓 수위에서는 '수원삼성-강원' '수원FC-제주' 강등권 대결



K리그 2023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지막날' 광주FC는 파이널A에서 3위 싸움을 벌인다. 파이널B에서는 수원에서 생존 전쟁이 펼쳐진다.

광주가 12월 3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38라운드 시즌 최종전을 갖는다.

'기적 같은' 2023시즌을 보낸 광주는 또 다른 구단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광주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돌풍을 일으키면서 순위 싸움의 중심에 섰다. '이정효표' 화끈한 공격으로 팬들에게 축구의 묘미를 보여준 광주는 흥행과 성적까지 동시에 잡았다.

광주는 1부 복귀 시즌에 파이널라운드 A 진출을 이뤘고, 올 시즌 K리그1에서 유일하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했다. 또 최소 5위를 확보하면서 구단의 K리그1 역대 최고 순위도 새로 썼다.

광주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에 창단 후 최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이라는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ACLE 진출권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무승부 또는 패배를 기록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진다.

광주가 앞선 전북전 패배로 승점 58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사이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각각 승점 57, 승점 56으로 광주를 추격해 왔다.

승리 없이 광주가 경기를 마무리한다면 전북과 인천의 경기 결과까지 살펴봐야 한다. 전북과 인천

은 각각 울산현대와 대구FC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3위는 ACLE 플레이오프, 4위는 ACL2에 진출하게 된다.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 잡았던 ACL 티켓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광주는 간절하게 승리를 노리며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다.

최종전을 앞두고 반기운 전력 가세도 있다. 앞서 티모가 전북 원정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경고 누적으로 쉬었던 '국가대표' 이순민도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댔다.

포항은 광주에 어려운 상대였다. 올 시즌에도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섰지만, 안방에서 4-2 대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당시 팀의 4번째 골을 장식하기도 했던 '주장' 안영규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강조했다. 준비한 대로 자신감 있게 광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기대된다.

3일 파이널A 최종전에 앞서 2일에는 파이널B의 '생존'을 건 승부가 펼쳐진다.

수원에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2일 오후 2시 파이널B 3경기가 동시에 kick-off된다. 이날 수원에서 열리는 두 경기에서 강등권에 있는 3개 팀의 운명이 갈린다.

수원삼성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를 상대하고, 수원FC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최종전을 갖는다.

나란히 승점 32 확보에 그친 수원FC(43득점)와 수원(35득점)은 득점 결과에 따라 11위와 12위에 자리하고 있다. 수원을 만나는 10위 강원도 승점 33으로 강등권에 있다.

9위 제주는 승점 40으로 9위를 확정할 만큼 강원과 수원의 두 팀이 마지막 생존 싸움을 하게 된다.



광주FC가 3일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시즌 최종전에서 3위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동시에 노린다. 지난 6월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두현석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K리그 최하위인 12위가 되면 K리그2로 자동 강등되고, 11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특히 최하위에 있는 수원은 4차례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전통의 명가'인 만큼 수원의 운명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위가 찾아왔지만 흥미로운 3위, 최하위 싸움에 K리그1 그라운드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안방에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광주는 홈 폐막전을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가수 장소영, 진이랑, 치어리더 엘리스의 공연과

다양한 경품도 준비했다. 광주는 추첨을 통해 2024년 태극 전지훈련에 동행하는 여행상품 10매와 스탠바이미, 닌텐도 등을 팬들에게 선물한다. 또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선수단 전원과 하이파이버 행사를 하고 2023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만의 양궁 스타일로 파리올림픽 선발전 준비"

### 광주 남구청 양궁 이승윤

###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실업연맹회장기 개인전 금메달 국가대표 선발전도 2차 관문 통과



이승윤

2023 양궁 국가대표이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이 올해의 성과를 원동력 삼아 내년을 준비한다.

이승윤은 최근 올해 마지막 메달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실업연맹회장기 남자부 개인전에서 한중혁(인천계양구청)을 세트 스코어 6-4(30-30 30-29 30-30 29-30 30-2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광주-전남 남자 선수 중 유일하게 2차 관문을 통과하며 파리올림픽에 한층 더 가까워진 그는 올해를 계기로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다. 16강 이후부터 긴장이 되면서 더욱 집중이 되니 잘 맞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윤은 지난 3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4 양궁 국가대표 리커브 2차 선발전에서 배정합계 55점을 기록했고 13위로 20강에 안착했다. 광주-전남 남자 선수로는 유일한 통과였다.

있을 3차 선발전이 남았다. 그는 "중요한 시합이다 보니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집중력을 높이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승윤은 무조건 정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양궁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양궁도 뭔가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꼭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세도 정석에서 살짝 벗어나서 쏘는 스타일이라 다른 선수랑 조금 다른 편이다"며 "임기응변식으로 활을 쏘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인 양궁에 감정 기록은 방해가 되기도 한다. 무던한 성격도 그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 한몫을 했다. 그는 시합 하나하나의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날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 올려놓는 것에 집중해 오고 있다.

그는 "저는 그냥 항상 똑같다. 해마다 컨디션이 다르긴 해도 그렇게 편차가 큰 편은 아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스타일이다. 운이 좋으면 잘 되고 나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해주신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손흥민



홀란

## '캡틴 손' 위기의 토트넘 구해낼까

### 14라운드 토트넘-맨시티 경기 손흥민-홀란 '득점 대결' 치열



소속팀 토트넘의 리그 4연패 저지 임무를 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버티는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는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은 4일 오전 1시 30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3연패로 추중하며 5위(승점 26)로 미끄러진 토트넘은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2위·승점 29)를 만난다.

8골로 득점 3위를 달리는 손흥민은 지난 13라운드에서 EPL 역대 최단 경기 50골을 달성한 홀란(1위·14골)과 득점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3연패 기간 득점 행진을 멈춘 손흥민의 부활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작년 경기였던 애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골만 3차례 넣은 '오프사이드 헤트트릭' 불명예를 쓰고 무득점에 그쳤다. 팀은 1-2로 패하고, 애스턴 빌라에 4위 자리까지 내줬다.

장기 부상에 시달리는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 더 덴, 사타구니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히샤를리송에 더해 로드리고 벳투르마저 발목 인대가 파열되며 토트넘은 부상 병동이었다. 침체한 팀 분위기와 순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캡틴'의 한 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손흥민에 앞서 '코리아 가이' 황희찬(울버햄프턴)은 3일 0시 아스널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득점과 리그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에 도전한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멀티골은 없지만 시즌 초부터 꾸준히 활약하며 EPL 13경기에서 7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다만 상대는 현재 EPL 1위를 달리는 아스널(승점 30)이다. 아스널은 30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랑스(프랑스)에 6명이 골맛을 보며 6-0 대승을 거뒀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지만, '아프지 않은' 황희찬이 올 시즌 리버풀, 맨시티, 애스턴 빌라, 뉴캐슬 등 상위권 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강팀 킬러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아스널전에서도 활약을 이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은 지난 3일 몽펠리에전에서 리그 마스결이포 이후 약한 달 만에 리그 2호 골을 쏘아냈다.

이강인은 3일 오후 9시 트아브르와의 2023-20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도전한다.

이강인은 A매치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 1골 2도움으로 득점 감각을 한껏 올린 채 PSG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강인은 25일 AS모나코와의 13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 들었지만 그라운드 밟지 못했다.

지난 28일 뉴캐슬과의 U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는 처음 UCL 무대에 선발로 나서 82분간 경기를 소화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아스널, 6골 폭발...랑스 꺾고 UCL 16강 진출

아스널(잉글랜드)이 여섯 골을 폭발하며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 진출했다.

아스널은 지난 30일 열린 2023-2024 UEFA UCL 조별리그 B조 5차전에서 랑스(프랑스)를 6-0으로 대파했다.

승점 12를 쌓은 아스널은 조 1위를 확정하고 이날 세비야(스페인)에 3-2로 승리를 거둔 PSV에 인트호번(네덜란드)과 함께 16강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반면 랑스는 6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도 2위 예인트호번(승점 8)에 상대 전적에서 밀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아스널은 전반 약 15분 동안 네 골을 몰아 넣고, 추가 시간에도 득점포를 가동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반 13분 카이 하베르츠가 문전에서 왼발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21분에는 가브리엘루 제수스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골대 구석을 찔렀다.

이어 2분 뒤에는 가브리엘루 마르치넬리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세컨드 볼이 문전으로 쇄도한 부카요 사카의 몸통에 맞고 그대로 골대로 향했다.

다시 5분 뒤에는 마르치넬리가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수비를 따돌린 뒤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반

대쪽 골대 구석으로 골을 보내며 15분간 랑스를 정신없이 몰아붙였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역습 상황에서 마르틴 외데고르가 왼발 발리슛으로 팀의 다섯 번째 골을 기록했고, 후반 41분에는 조르지뉴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6-0을 완성했다.

6골을 모두 다른 선수가 득점한 것과 전반에만 다섯 골 차 이상으로 경기를 리드한 것은 UCL 역사상 최조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와의 조별리그 A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3-3으로 비겨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A조에서는 1위로 일찌감치 16강 한 자리를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승점 13)을 제외하고 2~4위가 승점 1차로 불어 혼전에 빠졌다.

/연합뉴스